

May 19, 2017

Energy Daily Korea – Interview with Antonio Pietri, President and CEO, AspenTech

Translated summary:

AspenTech has evolved into an asset optimization company for process manufacturers and capital intensive industries. Antonio Pietri, President and CEO, AspenTech, explains that while asset designs enable profitable and agile operations, asset improvement is an ongoing process that incorporates operations and maintenance with design to achieve superior reliability. As such, process safety remains a key aspect across the entire asset lifecycle. Aspen APM software suite literally combines asset analytics, reliability modeling and machine learning to analyze, understand and guide. Pietri added that AspenTech is an excellent fit for Korean companies wanting to compete better globally via innovation. With APM, process manufacturers and capital intensive companies can achieve significant cost and time savings. He expects Korean companies to be early adopters in leveraging industrial automation technology to achieve greater productivity growth.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63>

기억 인터뷰

[인터뷰] 아스펜테크 안토니오 피에트리(Antonio Pietri)
사장 겸 CEO
4차 산업혁명, 자산 최적화 위한 기술 활용 기대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2017.05.19 18:15:08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아스펜테크는 공정최적화(Process optimization)에서 자산최적화(asset optimization)로 전환한 아스펜테크의 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35년 이상 노력해왔다. 현재는 공정 모델링, 진단 및 예측, 그리고 자산 최적화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산 최적화는 자산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결정 수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sim)을 통해 다음 세대의 최적화를 모색하고 있는 안토니오 피에트리(Antonio Pietri) 사장 겸 CEO를 만나 아스펜테크에 대해 들어왔다. <편집자주>



▲APM을 비롯한 자산 최적화솔루션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공급할 수 있는 APM 고객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화학 및 제약회사들이 APM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온엘라셀(Leonel Elacel)사는 "아스펜테크의 새로운 자산 분석에는 독특한 모델링 및 데이터 과학이 번갈아 도입되었다. 이 속행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솔루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정 인사이트를 추가로 활용하면 최대 한계치에 가깝게 운영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세계적인 규모의 올레핀(olefins) 유닛의 경우 연간 수백만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공정산업현황과 다가오는 전환은 무엇인가?
중요한 세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복잡성의 증가는 이제 광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한국 공장이 특수 화학 제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북아시아 지역은 매우 경쟁력이 있는 공급 원료의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 지역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장이 처한 글로벌 환경에서 한 기업들은 차세대 성장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현재 기업들은 자국 가능한 운영의 우수성과 수익성 향상의 기반으로 자산 최적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 성능을 최적화하면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자산최적화와 APM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자동화의 발전이 향후 수십 년간 경제에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펜테크는 자산 최적화를 통해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있습니다.

또한 아스펜테크는 모든 형태의 근본 원인을 예측 및 제거하고 APM을 통해 유지 보수의 지체와 기율에 투자하고 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다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공학 등 자동화 트렌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대 기계 논쟁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간 대 기계 논쟁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워렌버핏(Warren Buffett)의 '인공지능은 사회적 이점이 크지만 엄청난 파괴자이다', 엘론머스크(Elon Musk)의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계와 융합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알론머스크(Elon Musk)의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잭마(Jack Ma)의 '기계를 인간형으로 할 때 패스트로 한걸음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변동성, 산업 복잡성, 자동화와 같은 산업 트렌드는 상을 수세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더욱 생산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펜테크의 APM 솔루션 특히 데이터분석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중요한 데이터와 운영 내에는 모델과 빅데이터를 통해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운영데이터, 유지 보수 기록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 설계 데이터, 설계 데이터, 연구소 데이터, 환경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펜테크는 중요 운영 영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스펜테크의 APM 소프트웨어는 공정으로 인한 다윈이론과 같은, 현재의 유지 보수 및 자산 관리솔루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머신 러닝, 데이터 과학, 세계 최고의 공정 모델링을 결합해 활용하면서 여기서부터 다른 다윈이론을 제거하는 예측 및 예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전체적인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산 하위를 이끄는 공정 제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기반 다윈이론의 80%를 고객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다른 다윈이론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융합을 수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아스펜테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화에서 다음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변화로 추진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요소는 데이터 융합 및 계산 능력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커넥티비티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기계 상호 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에 디지털 영향을 전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아스펜테크는 자산 최적화를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은 산업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생산성 성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는 모델링, 소셜, 클라우드 컴퓨팅, 커넥티비티, 검색 및 관련 분석, 3D/시각화 및 증강 현실, 분석 및 고성능 컴퓨팅에 있습니다.

▲아스펜테크의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성과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면?
비즈니스 성과와 관련해 아스펜테크는 국가별로 수치를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스펜테크는 한국 기업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기업입니다. APM은 운영 제조 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의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다른 다윈이론의 8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아스펜테크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아스펜테크는 한국 고객들이 산업 자동화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선두 주자로서 더 큰 생산성 성장을 가져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최적화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 기업과 그 경쟁자들 간의 성과 격차를 넓혀줍니다.